

숨과 심

삼애교회 목회서신

2020. 9. 13. 제44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편집 발행인 김동환

031-975-1885, 1884(fax)

<http://samae.yonsei.ac.kr>

love3@yonsei.ac.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

사랑? 어떤 사랑?

출애굽기 12:1-14; 로마서 13:8-10; 마태복음서 18:18-20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풀려나는 민족의 해방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광복절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에 사는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틀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라는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Passover) 곧 ‘넘어서 지나가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넘어서 그로부터 천 년이 훨씬 더 지난 후인 서기 0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스라엘만이 아닌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의 심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요 3:16)라는 복음의 정수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때가 교회 절기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입니다. 유월절 제사에서 바쳐진 어린 양의 피로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 유월절 시기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유월절로만 지키고 부활절로는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부활절로 지키는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 심판자이자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내 집안, 내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류의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 곧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 또한 나만이 아니라 너도 위하는 공동체적 삶을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유월절을 부활절로 지키는, 기독교인의 유대인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당위적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유월절을 올바르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당위적 삶은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나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 나만, 내 가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각 가족이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하는데 만약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4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

요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는 것은 가족 단위를 넘어서 전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든 모두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10절)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래도 남을 경우라 해도 나를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보관해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철저히 이웃과 모두 나누어 먹고, 이처럼 나누어 먹는 것으로 유월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유월절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참된 유대인이란 이 계율을 지킬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을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을 부활절로 지키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부활절 달걀 나눔, 부활절 공동 식사 나눔이 진정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 이웃들을 향한 나눔으로 실천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실천하신 나눔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철저한 희생적 나눔이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적 나눔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상의 기독교의 가치로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따라서 유월절을 부활절로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이 새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까운 이웃과 나누는 유대인들의 나눔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8-9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행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한다고 했으니 내 몸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내 이웃의 몸에게 내 몸처럼 퍼뜨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왜곡된 이웃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10절). 이웃에게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해를 입히는 이웃사랑이 과연 기독교의 사랑이 맞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야합니다. 핵심은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나누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끊임없이 자선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의 이기심을 자제하는 사랑이며, 나의 가족의, 나의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이타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고귀한 사랑에 먹칠하지는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합니다. 우리의 발언에 있어서 조심해야하고,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할 때가 바로 작금의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과 부합할 때에만, 또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맥을 같이 할 때에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만 작금의 기독교에 대한 깊은 오해도 풀려질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 김 동 환(2020. 9. 6. 삼애교회 주일예배 설교)